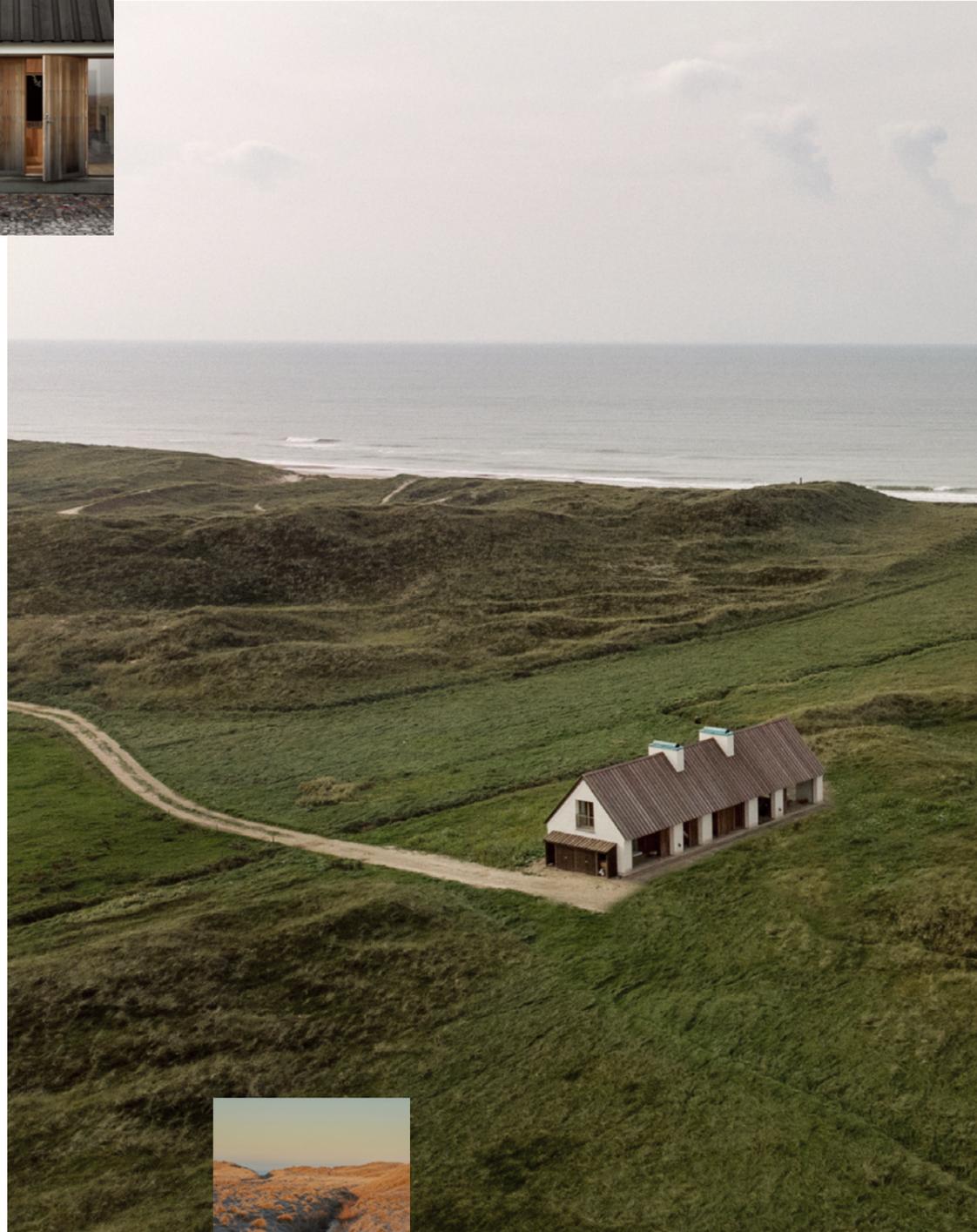


NORDIC GETAWAY

비밀스러운 자연의 리듬을 따라서. 숲과 바다를 품은 천혜의 북유럽 대자연 속에서 누리는 환상적인 휴식의 여정.

CONTRIBUTING EDITOR KIL BO KYUNG EDITOR LEE KYOUNG JIN



세 개의 침실, 거실, 주방, 다용도실, 두 개의 욕실 등으로 구성된 콜드 하와이는 총 여덟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2층 주택이다. 해변과 모래언덕, 절벽에서 영감을 받은 모래색 톤과 풍부한 질감을 드러내는 파스텔 색조의 팔레트가 공간에 평화로운 무드를 더한다.



COLD HAWAII

‘최후의 야생 자연’이라는 덴마크 최대 국립공원인 티(Thy)는 유틀란트 반도 북서 해안의 거친 바다와 탁 트인 평야를 아우르며 원시의 속살을 드러낸다. 야생초 덩불이 무성한 모래언덕을 거쳐 오솔길을 따라가면 다다르는 작은 마을 방사(Vangså). 이곳의 광활한 초원 위에 우뚝 서 있는 ‘콜드 하와이’는 디자인 브랜드 빕(Vipp)이 전개하는 게스트하우스 중 하나로, 슬로 라이프 애호가를 위해 현대식으로 지은 독채형 숙소다. “무인 지대를 거니는 느낌은 달 표면에 있는 듯하다.” 이곳의 레너베이션을 맡은 건축가 에베 라브센(Ebbe Lavsen)의 말처럼 오롯이 자연으로 둘러싸인 외딴섬에 들어선 듯 초현실적인 공간감이 휩싸이게 된다. 언뜻 보면 어부의 별장처럼 보이는 콜드 하와이는 자연스럽고 단순한 외형으로 주변 풍경에 녹아든다. 미니멀리즘과 브루탈리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기하학적 형태와 반복적인 실루엣이 돋보인다. 집 안의 중심처럼 자리한 주방에는 V3 메탈 키친 시스템이 있고, 곳곳에서 빕이 제작한 가구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다. 박공지붕 아래 하얗게 칠한 벽, 삼면이 거대한 유리로 둘러싸인 거실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 풍경과 조우한다. 밀려드는 파도와 바람 소리 외에는 적막만 감도는 이곳에서 창밖으로 상영되는 영화 같은 풍경을 벗 삼아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건 어떨까. 콜드 하와이는 서퍼들의 천국이기도 하다. 숙소에서 몇 걸음만 나가면 만날 수 있는 파도는 서핑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자전거를 대여해 국립공원을 탐험하거나 마을 주변을 산책하며 호젓한 풍경을 즐겨도 좋을 것이다.



(위) 캐빈형 호텔인 란데트 스테이는 집의 편안함을 누리면서 자연에 몰입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제공한다.
 (아래) 주방에서는 란데트 스테이에서 제공하는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통해 현지의 신선한 재료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LANDET STAY

스톡홀름에서 차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란데트 스테이'는 스웨덴 군도 지역인 트로사(Trosa)의 자연보호구역 내에 자리 잡은 캐빈형 호텔이다. 도시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즉각적인 평온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심을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야를 가득 메우는 거대한 나무숲. 울창한 수목이 발산하는 상쾌한 풀내음에 숨을 고르면 곧바로 머릿속까지 개운함이 퍼진다. 북유럽 문화의 상징인 오두막에서 영감을 받은 란데트 스테이는 천연 재료와 간결한 구조, 개방성으로 대면되는 스칸디나비아 자연주의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준다. 스웨덴의 유명 건축가 안드레아스 마르틴-뢰프(Andreas Martin-Löf)와 런던 디자인 스튜디오 8 홀랜드 스트리트(8 Holland Street)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토비아스 버넌(Tobias Vernon)이 건축과 인테리어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건축으로 부지에 최소한의 흔적을 남기는 데 주안점을 뒀다. 바위 위에 떠 있는 듯한 캐빈의 외관은 어두운 목재와 미니멀한 장식으로 주변 풍경과 자연스러운 하모니를 이루는 반면, 실내에 들어서면 오크 벽 패널과 아이보리 가구, 마호가니 타일 등 따뜻한 색상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주방과 욕실에는 금속을 적절히 활용해 시각적 대비를 자아낸다. 전통적인 스웨덴 농가 스타일을 따르는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대적 디자인을 적용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훌쩍 떠나 자연에 파묻히고 싶지만 편의를 놓치고 싶지는 않은 현대인의 마음을 십분 반영한 곳이랄까. 넓은 테라스와 정원에서 일광욕을 즐기다 해가 저물면 삼삼오오 모여 와인잔을 곁들이기에 제격이다. 어떤 캐빈을 고르든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며, 나만의 안식처에 온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노르웨이 북부의 모험 정신에서 영감을 받아 천연 목재로 지은 아웃도어 리조트, 우드 호텔 보되. 모든 객실과 웰니스 공간에서는 바다와 숲의 전망이 살아 있는 엽서처럼 펼쳐진다.



따뜻한 톤의 북유럽 가구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아늑한 감성을 자아냈다. 객실에는 오랜 전통의 장인 정신으로 견고한 만들새를 자랑하는 슬렛볼(Slettvoll) 가구와 하델란드 글라스베르크(Hadeland Glassverk)에서 입으로 불어 만든 조명을 배치했다.



WOOD HOTEL BODØ

노르웨이의 항구도시 보되(Bodø)는 북극권이라 여름철 한밤중에도 해가 지지 않는 하얀 밤이 장관을 이룬다. 카약이나 스키 등 다양한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가능할 뿐 아니라 도심 지역도 잘 가꿔져 있어 자연과 문화를 두루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보得的 대표 관광지로 알려진 뢰빅피엘렛(Rønvikfjellet) 산의 정상에 파노라마 전경을 자랑하는 우드 호텔 보되(Wood Hotel Bodø)가 있다. 과거 등산객에게 중요한 허브였던 전망대 투리스티타(Turisthytta)의 역사를 계승하고자 현지에서 수급한 나무를 메인 건축 소재로 활용했다. 총 177개에 달하는 객실을 다양하게 구성해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기는 탐험가부터 세련된 휴식을 원하는 여행자, 워킹 근무를 위한 장소를 찾는 리모트 워커까지 모두를 아우른다. 모든 객실에서 바다와 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어 자연 속 호사가 따로 없다. 객실은 자연친화적 디자인을 일관적으로 적용해 따스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감돈다. 7층 레스토랑에서는 유명 셰프 크리스티안 안드레 페테르센(Christian André Pettersen)이 이끄는 노르 매트스튜디오(Nord Matstudio)가 노르웨이의 대자연과 투리스티타의 유산에서 착안한 창작 요리를 선보인다. 알파인 치즈를 활용한 비프 타르타르, 허브 버터를 넣고 끓인 가지미집, 엘더플라워와 딸기를 으개 바닐라 크림과 곁들여 먹는 세프 추천 디저트 등 환상적인 맛을 제공하는 메뉴로 가득하다. 8층의 야외 수영장과 사우나의 뷰는 이곳의 화룡점정. 보得的 비경을 파노라마로 목도하는 순간, 로맨틱한 휴양의 정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COURTESY OF LANDET STAY, WOOD HOTEL BODØ, VIPP/ART DESIGNER · LEE YU MI